

만남

2020년 7월
통권 186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 박 철 현 미카엘

신부님 칼럼	+ 참된 기쁨-----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그가 씨를 뿌리는데-----	4
교리	사회교리의 이해-----	7
기도하는 삶	-----	10
지혜로운 삶	-----	12
영적 상담	-----	14
나눔	-----	16
축일을 축하합니다	-----	18
전례	-----	19
공동체 소식, 지방 공동체 소식	-----	20
활동단체 모임 안내	-----	21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안내	-----	23
미사안내	-----	24

《교황님의 7월 기도지향》

❖ 보편 지향 : 가정

오늘날 가정들이 나아가는 길에 언제나 사랑과 존중과 조언이 함께하도록 기도합시다.



참된 기쁨

기쁨이란 말을 떠올리면 ‘행복’이라는 말이 함께 떠오릅니다. 행복의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구약성경에서 기쁨은 인간 체험의 다양한 영역을 가리키는데, 기쁨에 대한 구약성경 이해에서 근본적인 것은 역사 안에서 하신 하느님의 행위입니다. 구약의 이런 기쁨에 대한 이미지는 신약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해 예수님 안에서 하신 일인 ‘복음’은 그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참된 기쁨은 복음을 나를 위한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복음의 아름다움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복음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히고, 복음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실 기쁨은 하느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지만 우리가 훈련을 통해 성장시키지 않으면 어느새 사라져 버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외부의 상황과 자신의 감정에 상관없이 모든 것을 하느님께 의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대낮 같은 밝은 빛은 아니지만 기쁨이 “한 줄기 빛으로라도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낯설게 보일 수도 있는 그리스도인의 이 기쁨의 비밀은 자신이 “하느님께 끊임없이 사랑받는다는 굳건한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받는 존재로 볼 때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기쁨에 찬 것이 되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끌어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교황님께서는 날마다 성장해야 하는 선물 같은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 세 가지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이 기쁨은 기도생활과 하느님 말씀 묵상과 성사 거행과 참으로 중요한 공동체 생활에서 자라나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인 토대가 없다면 복음의 기쁨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죄와 유혹에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느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모든 것을 공동체적인 정신에서 바라보고 결정하는 태도를 지닐 때 “한 줄기 빛으로라도” 우리 안에 늘 현존하는 기쁨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복음의 아름다움에 날마다 놀라는 체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기쁜 소식)을 전하겠다는 결심을 불러일으키는 최선의 동기는, 복음을 사랑으로 관상하고 조금씩 찬찬히 마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복음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복음의 아름다움에 놀라고, 복음을 읽을 때마다 거듭 매료됩니다.”(「복음의 기쁨」, 264항).

기쁨을 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기쁨을 체험하고 그 기쁨의 샘물을 끊임없이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기쁜 사람입니까? 우울한 사람입니까? 하느님의 기쁨이 함께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은 동심원처럼 서서히 번져갈 것입니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마태 13,1-9)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76장 “그리스도 왕국”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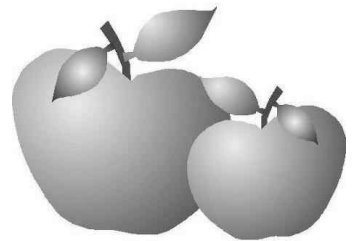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주님! 풍성한 은총과 더불어 저희 마음을 비옥하게 해주소서.
- ❖ 햇볕과 비의 주관자이신 주님, 당신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진행자 한 분이 마태오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13 1 그날 예수님께서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2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서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3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4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다.
5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6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 버린 것이다.
7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 버렸다.
8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예순 배, 어떤 것은 서른 배가 되었다.
9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다음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지금 내 마음의 밝은 어떤 상황인가요?*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농부의 삶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들려주시는 예수님께서서는 친절하신 분이심에 틀림없습니다. 아래를 향해서 위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듣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비유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기보다 땅의 비유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씨 뿌리는 사람이 아니라 씨가 떨어진 땅에 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은 씨가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똑같이 주어지지만 그 열매는 같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올바르게 작용하려면 인간의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권능이 완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간의 품위를 높이는 인간의 구원에 인간의 협력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은 돌과 같이 딱딱한가요, 아니면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인가요? 내 마음의 쓰레기와 돌맹이를 주워내고 흙덩어리를 부수어서 주님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리게 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마음을 무디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옥한 땅은 내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거기에 주님께서서는 더 큰 은총의 햇볕과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과연 내가 살아가는 삶은 열매를 맺는 삶입니까? 아니면 쪽정리로 가득한 삶입니까?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그리고 이번 달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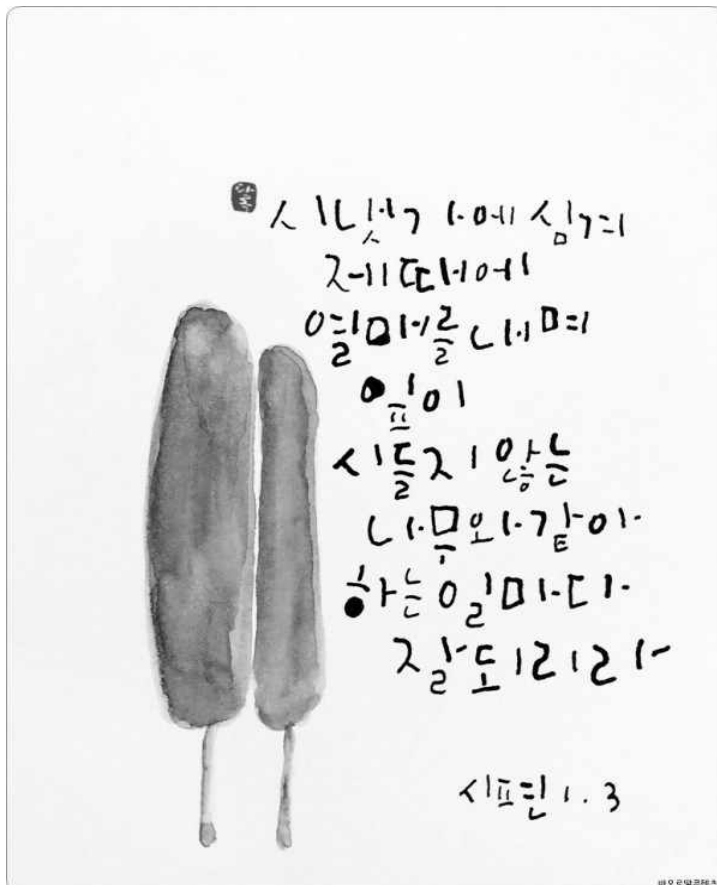
★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76장 “그리스도 왕국”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52. ‘혐오’라는 악령

신종 바이러스의 등장과 함께 인류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혐오라는 악령이 그 민낯을 함께 드러냈습니다. 혐오라는 악령은 인류 역사 안에서 지속적으로 함께해왔고, 이를 극복하려는 선한 사람들의 노력 역시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인류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라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인류는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을 통해 모든 인간은 존엄함을 천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오는 인류에게 기생하며 특히 약자와 소수자를 공격해왔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수면 아래에 있던 혐오의 마음들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인종차별이 일부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사회 안에서도 특정 국가와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가 넘쳐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겪는 어려움과 공포는 마음속에서 분노로 변했고, 이 분노는 혐오가 되어 사방을 찌르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2019년 세계 이민의 날 담화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단지 이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황님께서는 이민 문제를 통해 전 세계로 번지는 혐오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민의 문제는 우선 타인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은 사람을 폐쇄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폐쇄성이 인종차별로 이어집니다. 이민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실천으로 혐오를 극복하면 우리들의 믿음도 증명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민의 문제는 그 누구도 배척하지 않음으로써 해소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더 큰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은 매번 작은 이들, 가난한 이들, 가장 힘없는 이들입니다. 세상은 이들을 배척하지만,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역사를 통해 인류가 배운 바는, 혐오를 통해 해결되는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혐오는 또 다른 혐오와 폭력을 불러올 뿐입니다. 그러니 신앙인들은 혐오에 맞서 하느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타인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선한 의지를 가진 모든 사람은 함께 연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혐오의 문화가 극복됩니다. 사랑과 연대가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냅니다.

“당신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당신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도 혐오하지 않으십니다. 당신께서 지어 내신 것을 싫어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기에 당신께서는 모두 소중히 여기십니다.”(지혜 11,24.26)

53. 인권의 특성

“교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더욱 실질적으로 인식하고, 인간 존엄성이 창조주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새겨주신 특성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데에 인권 주장이야말로 현대가 제공해 준 훌륭한 기회라고 본다.”(교황청 정의평화협의회, 「간추린 사회교리」, 152항)

사회교리는 인권의 특성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먼저 인권은 보편적입니다. 모든 인간이 지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권은 침해당할 수 없습니다. 권리 자체가 인간과 인간 존엄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은 양도할 수 없으며,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인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인권의 침해 혹은 무시하는 죄와 분리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느님을 외면할 때 일어납니다. 즉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는 죄로 인해 침해당합니다. 이렇듯 관계의 깨어짐은 죄의 특성입니다. 죄는 범한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 끼치는 이중의 상처가 됩니다.

죄에는 개인적 차원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도 담겨 있습니다. 모든 죄는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죄가 반복되면 죄의 구조가 사회 안에 자리 잡습니다. 타인을 향한 혐오와 차별, 인권에 대한 배제가 일상화되는 것입니다. 원죄와 사회 안 죄의 구조로 인해 죄는 보편적 성격을 지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시 보편적입니다. 원죄로 인해 깨어진 인류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과 친교의 관계로 모든 사람을 초대하셨습니다. 사랑과 친교 안에 인권에 대한 존중도 자리합니다. 따라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사목 헌장은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인권을 수호하는 데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실천적이고 더욱 긴급한 결론을 내려서, 공의회는 인간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은 저마다 이웃을 어떠한 예외도 없이 또 하나의 자신으로 여겨야 하고 무엇보다도 이웃의 생활을 고려하여 그 생활을 품위 있게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수단들을 보살펴야 한다.”(27항)

“우리 시대의 역사는 인간에 대한 진리의 망각에서 오는 위험을 비극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나치즘, 파시즘과 같은 이념의 결과를, 그리고 인종 우월주의, 국수주의, 민족 배타주의와 같은 허황된 통념의 결과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인간 존엄에 대한 모독은 그 근거가 무엇이든, 어떠한 형태이든, 어디서 일어나든 결코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제32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 2항)

54. 성경 안에서의 인권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들도 그 존엄성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생명권, 자유권, 평등권 등 인간이 인간답게 살게 하는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인간의 존엄함에 관하여 말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권은 인간 생명에 대한 권리인데, 이는 이미 성경 안에서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탈출 20,13) 하느님께서 창조주이시기에 생명의 시작과 끝도 그분께만 맡겨져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형제 살해의 죄를 범한 카인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들어 보아라. 네 아우의 피가 땅바닥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창세 4,10) 그러니 인간들도 서로 간의 생명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사람을 해칠 권리는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보장받을 권리만 있을 뿐입니다.

세상 안에서 인권에 대한 침해는 차별과 억압이라는 형태로 드러납니다. 공생활 중에 예수님께서서는 이에 맞서 인간을 존중하셨습니다. 이미 그분의 첫 번째 설교에서부터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한 해방이 선포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루카 4,18-19)

이천 년 전 이스라엘에서는 차별과 배제가 만연했습니다. 율법은 본래의 정신을 잃고 정결과 부정을 판가름하는 기준으로만 기능해 차별과 배제의 도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서는 인간 그 자체를 존중하셨습니다. 상대가 이방인이어도 상관없이 없었고, 세리여도 상관없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찾아다니셨으며 과부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병자들과 장애가 있는 이들, 마귀 들린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베푸시어 그들을 치유해주셨습니다. 심지어 세상의 악자들을 당신과 동일시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다.”(마태 25,45)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차별이란 없습니다. “유대인도 그리스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갈라 3,28)

❖ 이렇게 힘들 줄이야!(김진호 프란치스코)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을 의식하면서 마음속으로 많은 것을 생각해본다.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유년시절부터 이룰 수도 없는 거창한 미래를 설계하며 희망이 넘치는 용기와 기대 속에서 방황하던 젊은 시절과 오늘이 있기까지의 삶들을 되돌아본다.

내가 희망하고 기대했던 욕심대로 이루고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하게 살아올 수가 있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그런데 오늘따라 왠지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단어가 나를 힘들게 그리고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달래보려고 창가에 서서 우두거니 창밖을 내다보며 그 무엇인가를 기대해 본다.

창밖의 작은 정원에 여러 종류의 꽃들과 세 그루의 과일나무들이 예쁘고 울창하게 성장하여 저마다 자신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며 나를 반겨 주는데, 나는 그 무엇이 부족해서인지 멍청하게 먼 하늘을 바라보며 내일을 생각해 보지만 특별한 답을 들을 수가 없어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에서 원인 모를 무엇인가를 걱정하게 한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초조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있을까 하고 생각해보니, 그것은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혼자 있어야 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 인가 생각된다.

2020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두려운 공포심에서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하더니, 결국 이 나라 저 나라에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구 죽어가고 있다는 뉴스가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 연초부터 중국우한이라는 도시에서 코로나바이러스라는 균으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 가다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여기 저기에서 수많은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뉴스는 어느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기 시작했고 결국 내가 살고 있는 함부르크에서도 지난 3월2일부터 무기 없는 전쟁을 의식하게 할 정도로 도시가 마비되는 금지령이 선포되었다.

이렇게 금지령이 선포 된지가 벌써 100일이 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 밖에

나가는 일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감옥 아닌 감옥생활을 경험하며 살다가보니 답답하고 불안하다 못해 두려운 공포심에 긴장하게 한다.

더 무서운 소식은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했다고 우왕좌왕하더니 불과 몇 개월 만에 확진자가 731.7만 명이 넘어서고 사망자도 414.1천 명이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공포 속에서 떨게 하고 있다.

내가 칠십삼 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삶이라서 더욱더 불편하고 답답하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코로나규칙을 지켜야할 수밖에 없기에 집에 갇혀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똥판지같이 지난날의 삶들을 많이 생각하게 한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가 없다는 불편함과 함께 그동안 내가하고 싶은 것들을 내 마음대로 누리며 살아올 수가 있었던 삶들에 감사하는 시간을 만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코로나에게 조금은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언제까지 지속 될지 모르는 코로나가 이렇게 무서울 줄이야 오늘 성체성혈대축일 미사봉헌을 통해서 알았고 느끼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느님께서 저에게 베풀어주신 사랑의 은총이라는 것을 깊이 느끼고 또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아니 인가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만나서 참 기뻐합니다.

하느님!

오늘 이 순간 저에게 베풀어주신 많은 사랑의 은총에 깊이 감사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느님께서 베풀어주신 많은 은총들은 누구나 다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삶이라 생각하며 살아왔기에 감사함을 모른 채 당연하게만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까지의 삶이 하느님께서 베풀어주신 특별한 사랑의 축복이며 은총이라는 것을 배우고 느끼며 깨우치는 시간을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하느님 아버지 - 하느님과 나와 의 관계(서보호 라이문도 신부님)

영성생활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쉬운 의미지만 실제적인 삶 안에서는 막막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너무나 큰 분이시기에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어떻게 함께해야 할지 분명하게 와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분을 막연히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성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느님과 나와 의 관계를 잘 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고의 한계를 지닌 나약한 인간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생각에도 많은 왜곡된 개념과 사고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 잘못된 신관(神觀)이 수도 없이 등장했고, 사이비 종교는 지금도 세상에 널리 퍼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맞는 신을 만들어 믿는 것입니다. 올바른 정통 종교를 가진 신앙인들도 편협하고 왜곡된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가톨릭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났고, 교리의 왜곡된 이해로 잘못된 신심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하느님을 좁은 인간의 사고로 완전히 이해하려 한다면 잘못된 신앙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느님을 모른다.’는 생각이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합니다. 지식 이전에 하느님을 마주하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어떤 분으로 마주해야 하는지, 그분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지 등이 우선적으로 자리 잡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나와 의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얻게 되는 지식은 주님과 의 관계를 더 깊게, 더 넓게 만들어 갑니다.

주님과 나와 의 관계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는 순수한 관계여야 합니다. 우리는 의외로 공기청정기의 필터처럼 여러 필터를 끼고 주님을 만나곤 합니다. 그 필터에는 하느님에 관한 지식도 포함되고, 자신의 신분도 포함됩니다. 지식이나 신분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인간 사고의 한계 때문에 좋은 지식과 신분도 왜곡된 필터의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처음의 순수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분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 쉽게 지나쳐 버리곤 하지만 기도를 시작할 때의 마음, 하느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떠한 가식도 꾸밈도 없는 순수한 관계입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부모에게는 그저 자식일 뿐입니다. 교황님도 부모에게는 단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어떠한 이익이나 목적 없이 형성된 가장 순수한 관계이면서 서로를 너무나 잘 알아 가식적이지 않는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느님께 이처럼 진솔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느님을 온 마음으로 아버지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분과의 관계는 진솔해지고 순수해져 더욱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부모와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랑하는 아버지 상을 생각하며 하느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또한 가장 순수하고 진솔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생각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장애물도 없이 순수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권한을 쥐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분께서 당신 아들을 하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에게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 당신을 친구로 부르라고까지 하셨습니다.(요한 15,15) 이것은 우리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시기 위한 그분 마음의 표현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 어떤 걸치레도 다 벗어버리고 있는 그대로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영성생활은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진정 하느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친구로 마주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니는 것, 이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그분께 드러낼 수 있고, 어떠한 가식도 벗어 버릴 수 있으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이러한 순수한 마음에서부터 싹트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영성생활이 됩니다.



질문

주님께서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지만 어렵습니다. 사랑은커녕 미워하지만 알아도 다행일 정도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 홍성남 신부님(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 소장)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은 초기 성인기에 완수해야 할 과제입니다. 관계 맺기에 별 이상이 없으면 30세가 넘으면 싫은 사람이나 상황을 견뎌내고 존중하는 힘과 여유를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장단점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요.

관계 맺기가 잘 안 되는 것은 첫째,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할 때입니다. ‘친해지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이 왠지 나를 꺼리는 것 같다.’거나 ‘상대방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걱정스럽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민감한 이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도 도움의 손을 내밀지 않아 다른 이들의 손길을 거부하기에 관계 맺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은 많은 관계 맺기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되고, 비교적 편안하게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을 ‘굴복’의 개념으로 받아들일 때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이 들수록 자기가 좋아하고 인정하는 사람들과만 끼리끼리 다니려는 편협성을 보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다 보면 나이 들수록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괴팍해집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같이 방을 쓰는 사람들, 식당이나 성당 자리를 친한 사람들끼리 쓰지 못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지나치게 심리적 거리를 두려고 할 때입니다. 물론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적 거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기 내부의 공격성이 튀어 나가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심리적 거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의를 지킨다고 하지요. 예의란 존중의 의미뿐만 아니라 방어적 개념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지나칠 경우 생기는 부작용은 거리를 두어서 갖는 편안함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서로 존중하라는 말은 이런 심리적 거리 때문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에게

게 주어지는 가장 좋은 처방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데 나를 거부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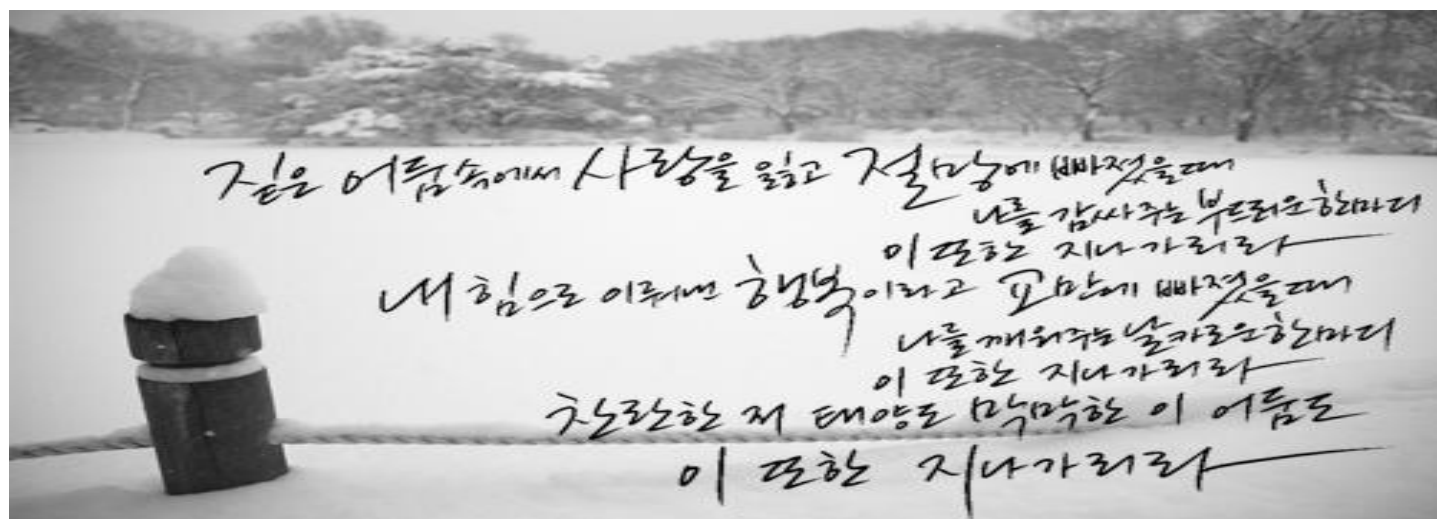
그런데 사람들의 관계 맺기는 신앙생활에서도 같게 나타납니다.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느님께서 나를 미워하실 지도 몰라.’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뜻밖에 많습니다.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느님이 자기를 미워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석하고 혼자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자기 방식대로만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성경도 자기 마음에 드는 부분만 보면서 자기식의 신앙생활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 사이비 종교 교주들의 성경 해석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런 현상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내적인 문제, 특히 병적인 대인관계가 신앙생활로 연장되어 나타난 경우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하느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사랑이시라면서 지옥은 왜 만드셨습니까?” 그러자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안 만들었다. 나를 싫어하는 놈들이 자기들끼리 만들었지.” 그러자 그 사람은 “흠 그렇군요. 그럼 하느님을 사랑하는 신자들은 왜 연옥으로 보내시는 것입니까?”하고 물었지요.

하느님께서 한숨을 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글쎄 그 아이들 때문에 나도 골치 아프다. 천당 입구까지 달려와서는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고 내가 부르면 자기들은 아직 자격이 안 된다면서 울며불며 하는데 등 돌려 도망치지도 멀리 가지도 않고 근처에서 내가 자기들을 미워한다고 속을 있는 대로 태우는구나. 그렇다고 지옥으로 보낼 수는 없고 해서 대안으로 속 태우며 살라고 연옥을 만들어줬다.”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것은 일상에서건 신앙에서건 아주 중요합니다. 관계 맺기가 잘 안될 때에는 내가 가진 문제를 잘 보고 교정해야 합니다.



❖ 방울토마토 씨앗(황혜인 올리아)

코로나 사태로 이동제한이 생기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방울토마토를 먹다가 문득 씨앗을 심어보고 싶어졌습니다. 토마토의 씨를 발라내어 물에 적신 휴지에 두었더니 금세 하얗고 뽀족한 뿔이 솟아났습니다. 그렇게 작은 뿌리가 돋아나고 이어서 줄기, 마지막으로 떡잎이 알에서 빠져나오듯 머리를 끄집어내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 너무나 신비로운 모습이었습니다. 2 mm 정도 밖에 안 되는 자그만 세포 덩어리가, 특정 온도와 습도 조건에 놓이면 세포 분열이 일어나 점점 자라나도록 프로그래밍 즉 설계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치밀한 프로그래머이시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학이나 영화 또는 역사 속에서 신앙과 과학이 대립하는 모습을 자주 접합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예로는 갈릴레이 갈릴레오의 종교 재판 사건이 있지요. 다윈의 진화론은 사람들에게 마치 하느님의 천지창조 하심을 완전히 반박하는 이론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의 삶을 다룬 영화 <호킹>에서는 그가 감정에 충실한 여자 친구와는 반대로 냉정한 무신론자로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기술이 발전하며 과학만능주의와 무신론자가 늘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반대하는 극단적인 신비주의도 존재합니다. 어느 쪽이든 극단적인 사고방식은 위험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안타깝고, 몇몇 사람들이 뭔가 오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는 과학 연구를 할수록, 주님의 전능을 더 절실히 느끼고, 우리 자신과 세상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파고들면 들수록 하느님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만들 수 있겠는가 하고 놀라운 것투성이입니다. 또한 이렇게 더 많이 알아가려는 인류의 노력이 결코 신앙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진리의 근원이신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유튜브를 보다가 이런 명언을 알게 되었습니다. “악의 어머니는 지식일 수 없고 정의는 무지함의 딸일 수 없다.” - 아그리파 도비네. 악과 불의를 피하고 선과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탐구하고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코로나 위기 초반에 유럽에서 일어나던 동아시아인

차별 사건들도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신앙인들은 세상의 이치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지식인들은 인간성에 더 가치를 둔다면 인류가 조화롭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과학의 영역이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라는 것은, 현재도 활발하게 최신 과학기술과 그에 맞는 윤리를 연구하고 사회와 꾸준히 대화하는 교황청 과학원의 활동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저는 교황님의 담화문에서 철저한 연구 근거를 바탕으로 한 사람과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에 감동하곤 합니다.

제 밭속으로 들어갈 뻔했던 작은 토마토 씨앗은 지금 쑥쑥 자라서 깊은 화분을 혼자 차지하고 우뚝 서서, 이제는 꽃봉오리까지 맺었습니다. 그 재미에 아보카도를 먹고 나온 씨앗도 심고, 무를 먹고 남은 윷동도 심는 등 집이 점점 농원이 되어, 아이들 돌보느라 무척 바빠졌습니다. 코로나로 얻은 즐거운 취미생활이랄까요? 이 상황에 이렇게 집에서 마냥 편하게 지낼 수 있음을 감사하며, 자가격리라는 사치는 누리지 못하는 자가(自家)가 없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신종 바이러스와 전쟁의 전방에서 맞서 싸우는 의료진들과 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후방에서 치료제와 백신을 연구하는 분들을 응원합니다.

* 필자는 함부르크에 소재한 DESY 연구소에서,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가장 기초적인 화학 반응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생입니다.



❖ 7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에스텔	우영주 강새벽	25일	크리스토퍼	김영기 Rabe
3일	토마스	강신행 이정수 홍종각		야고보	김형웅
12일	베로니카	김매자 육종인 박성아	26일	안나	김순임 심은희 최경숙
20일	엘리아 예언자	이동윤		아나벨	한선지 정정숙
21일	다니엘	심동근 김무송 김선일		빅토르	허두욱
22일	막달레나	김원자	28일	마르타	김정숙
24일	크리스티나	이정옥 문귀옥	29일		

❖ 7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일	토마스	탁준성(H)	25일	발렌티나	임선희(O)
			26일	안나	강지우(H) 곽유정(H) 정애령(H) 탁화자(H)
22일	마리아 막달레나	김혜림(B)	31일	이나시오	목진만(H)

사랑하고
축하합니다

❖ 7월 성가번호 ❖

7월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5일	287	220	160	283
12일	66	511	502	6
19일	460	211	176	454
26일	329	342	182	76

❖ 7월 미사 전례 봉사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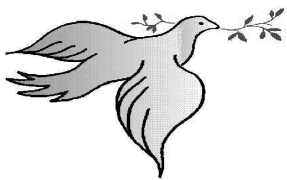
7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커피 봉사
5일	최화영(시몬) 최종금(로사)	이철우(아우구스티노) 이영희(체칠리아)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최장용(레오)	
12일	이수웅(필립보) 김순임(안나)	이영원(베드로) 이정옥(크리스티나)	주일학교	
19일	청년회	청년회	청년회	
26일	한말조(마리안나) 허명자(가밀라)	배성우(도미니코) 심은희(안나)	주일학교	



❖ Hamburg 공동체 소식

1. 7월은 휴가기간이긴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취소되거나 축소된 형태로 보내실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루 빨리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도록 건강에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7월에도 꾸리아, 연령회 등의 모임은 없으며 만남성당에서의 평일미사와 레지오, 그리고 예수 성심 성당에서의 주일미사만 있겠습니다.
3. 미리 알려드립니다. 8월에 계획된 배구대회 행사는 취소되었으며, 8월 말로 계획되었던 성령묵상회 모임도 없을 예정입니다.
4. 9월에 예정되어 있던 Nacht der Kirche 행사 역시 취소되었습니다.
5. 7월에도 주일미사 후 커피 나눔은 없겠습니다.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청합니다.



※ 7월 지방공동체 미사는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 없을 예정입니다. 함부르크 공동체와 지방공동체가 함께, 서로를 위한 기도 안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사목 협의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한말조(마리안나)
				부회장	허명자(가밀라)
				부회장	최영숙(데레사)
				전례부장	문경영(아가다)
				총무	이정훈(요나스)
주일 학교		매월 셋째 일요일	만남성당	교감	최영자(파울라)
연령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회장	정정숙(아나벨)
예비자 교리			만남성당	복음화	회장 대리
레지오 마리아	믿음의 샘 O.L.	매월 첫째 화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허명자(가밀라)
	자비의 도우미 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강순행(마르가리타)
	평화의 도우미 R.	매주 수요일 오전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현영애(헬레나)
	사랑의 도우미 R. (청년)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박성아(베로니카)
구역		1구역	반장	최종금(로사)	
			총무	김매자(베로니카)	
		2구역	반장	이영희(체칠리아)	
			총무	정정숙(아나벨)	
		3구역	반장	김형웅(야고보)	
			총무	이경구(안스카)	
		4구역	반장	육종인(베로니카)	
			총무	이순자(마리아)	
청년회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김한솔나(리드비나)	
			부회장	황혜인(율리아)	
요셉, 마리아회		매월 둘째 수요일 오전미사 후	회장	조현영(로사리아)	
			총무	이정은(프란치스카)	
여성 봉사회			담당자	이정옥(크리스티나)	
				김매자(베로니카)	
				권지연(안드레아)	

7월 중 행사 예정표

일	요일	전례 일	단체 행사	비고
1	수			
2	목			
3	금	성 토마스 사도 축일		
4	토			
5	일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6	월	성녀 마리아 고레티 동정 순교자		
7	화	소서		
8	수			
9	목			
10	금			
11	토	성 베네딕토 아빠스 기념일		
12	일	연중 제15주일		
13	월			
14	화			
15	수	성 보나벤투라 주교 학자 기념일		
16	목	초복		
17	금	제헌절		
18	토			
19	일	연중 제16주일, 농민 주일		
20	월			
21	화			
22	수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축일, 대서		
23	목			
24	금			
25	토	성 야고보 사도 축일		
26	일	연중 제17주일, 중복		
27	월			
28	화			
29	수	성녀 마르타 기념일		
30	목			
31	금	성 이냐시오 데 로올라 사제 기념일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박철현 미카엘
사목회장 한말조 마리아나(☎ : 0157 7021 0466)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mann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 보 만 남 ❖

편 집 인 박 철 현 미카엘 gruess8823@gmail.com
본당 신부님 H.P : 0176 4321 9708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둘째 금요일 17시 30분(2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